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다섯 남자의 오!머니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00 논설주간 세상보기 황호택의 눈을 떠요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삼생이〉 40 가정의 달 기획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신문으로 보는 세상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0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여풍당당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 스포츠 타임 20 가정이 달 기획 사랑의 가족(재) 5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주말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재)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12	20 뉴스와이드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 특별기획 〈백년의 유산〉(재)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휴스턴 국제영화제 수상작 시리즈〈기억〉(재)	00 비타민(재)		30 와일드 커넥션
2	3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뉴스 10 박근혜대통령 美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재) 40 노인 세상에 말을 걸다(재)	10 VJ특공대(재)	35 컬투의 베란다쇼 스페셜	00 SBS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40 이언경의 직언직설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아름다운 사람들(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3시 뉴스 10 뚝딱 아저씨 베스트	10 2013 희망 TV SBS 프롤로그
4	50 김광현의 탕탕평평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必通)〉	00 엘리먼트 헌터 30 TV 유치원	00 어린이 동물구조대 30 또르르 방울이 친구들	00 매일엄마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두리뭉실 뭉게공항(재) 30 명랑직장백서〈열정시대〉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고향을 부탁해	05 세상발견 유레카
7	1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자룡이 간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8	20 박종진의 쾌도난마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의뢰인K	55 MBC 특별기획 〈구암 허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컬투의 베란다쇼	
10		00 가정의 달 기획 KBS 파노라마 〈보이지 않는 아이들 1편〉 50 콘서트 필2	00 수목드라마 〈천명〉	00 수목미니시리즈 〈남자가 사랑할때〉	00 드라마 스페셜 〈내 연애의 모든 것〉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라인	20 해피 투게더	20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20 자기야
12	10 그 여자 그 남자(재) ①:2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글로벌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KBS 걸작다큐멘터리	40 세상의 모든 다큐 〈야켈족,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	40 MBC 뉴스24 ①:00 스포츠 다이어리 15 인천개항 130주년 기념 한·중 K-POP콘서트	40 SBS 토론 공감

EBS

06:00 건강한 아침
06:10 한국기행
06:30 미래 직업, 뜨는 직업
07:00 곤
07:15 바두와 친구들
07:30 마야의 모험
07:45 부릉! 부릉! 부루미즈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20 시계마을 티키톡
08:35 꼬마버스 타요
08:50 춤추는 곰 콩야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5 뚜바뚜바 눈보리
09:30 피들리팜
09:40 깨미
09:50 지구를 지켜라
10:10 세계테마기행 〈최후의 열대우림, 보르네오 4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빅마마 이혜정에게 배우는 레시피 - 바지락 버터찜과 두릅치즈구이〉
11:20 부모 〈가족고민상담소〉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13:05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4:00 지식채널e
14:05 버블버블 언어친구들
14:35 몬스터 수학나라
15:00 제로니모의 모험
15:30 바두와 친구들
15:45 마야의 모험
16:00 딩동댕 유치원 1~2(재)
16:20 피들리팜
16:30 꼬마버스 타요(재)
16:45 춤추는 곰 콩야(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0 시계마을 티키톡(재)
17:25 부릉! 부릉! 부루미즈(재)
17: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4
18:30 곤
18:45 정글북
19:00 EBS 뉴스
19:20 EBS 진중기획
19:25 지식채널e
19:30 지식발굴 프로젝트
20:2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늑대보다 영리한 사냥꾼, 코요테〉
20:50 세계테마기행〈스리랑카〉
21:30 한국기행〈서울 5산〉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22:45 극한직업 〈위험목 제거반 2부〉
23:15 영국지성과의 대화 〈당신은 미래의 인재인가?〉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1~2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00:50 내신 6감 〈수학(하)〉
01:40 포스 〈문학Ⅰ〉
02:30 〃 〈문학Ⅱ〉
03:20 〃 〈적분과 통계〉
04:10 〃 〈기하와 벡터〉
05:00 〃 〈수학Ⅱ〉
05:50 탐스런 〈물리Ⅰ〉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07:30 〃 〈Basic Grammar〉
08:20 탐스런 〈화학Ⅰ〉
09:10 〃 〈생명과학Ⅰ〉
10:00 〃 〈지구과학Ⅰ〉
10:50 〃 〈물리Ⅱ〉
11:40 〃 〈화학Ⅱ〉
12:3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13:00 탐스런 〈생명과학Ⅱ〉
14:00 〃 〈지구과학Ⅱ〉
15:00 기출플러스 〈화법·작문·문법〉
16:00 〃 〈수학Ⅰ〉
17:00 〃 〈영어-듣기편〉
18:00 EBS 수능특강 〈수학Ⅰ A형〉
19:00 〃 〈수학Ⅰ B형〉
20:00 〃 〈미적분과 통계기본〉
21:00 〃 〈수학Ⅱ〉
22:00 〃 〈생명과학Ⅰ〉
23:0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23:55 배움너머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07:30 EBSe 생활영어
08:00 물류관리사 시험 대비 강좌
08:30 선택 직업과 진로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수학①(하)〉
10:30 중학개념 끝장내기 〈한문〉
11:10 TV중학 〈도덕①〉
11:50 TV중학 2학년 〈수학2-1〉
12:30 〃 〈과학2〉
13:10 TV중학 3학년 〈도덕3〉
13:50 뻔뻔한영어
14:30 한글이 야호
14:50 뽕뽕이랑 냠냠
15:10 발명이 팡팡!
15:20 초등 내공 냠냠 〈과학 3-1〉
15:50 〃 〈과학 4-1〉
16:20 〃 〈과학 5-1〉
16:40 〃 〈과학 6-1〉
17:20 초등개념 잡기〈사회〉
18:00 동물대탐험 〈구리구리 댕댕〉
18:30 수학의 원리 마테마티카
18:40 어린이 역사드라마 〈점프〉
19:20 숲 속 친구 파파룰라
19:40 춤추는 곰 콩야
20:00 왕초보 중학영어
20:40 초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1:20 등업 신공 〈사회①〉
22:40 TV중학 3학년 〈수학3-1〉
23:20 EBS 드라마 스페셜 〈별들이 합창〉

"무대의 원동력은 관객 호응 흥 많은 남도 반응 가장 뜨거워"

KBS '열린음악회' 20주년 … 황수경 "내 인생이자 생활"

KBS 간판 프로그램 '열린음악회'가 9일 20주년을 맞는다.

지난 1993년 5월 9일 첫 전파를 쏜 이래 '열린음악회'는 국내외 각지를 찾아다니며 청중과 만나 왔다. 만남의 순간에는 황수경(42·사진) 아나운서가 있었다.

10년 넘게 '열린음악회'와 함께해온 황 아나운서는 지난 7일 여의도 KBS신관에서 한 인터뷰에서 "아직도 리허설 때부터 줄을 선 관객들을 보면 설레고,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분들을 보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힘줘 말했다.

황 아나운서는 '열린음악회'가 20년간 시청자와 함께할 수 있던 원동력으로 관객을 꼽았다.

"'열린음악회'의 힘은 객석에서 나와요. 관객들과 시청자가 없었다면 20년을 이어올 수 없었을 거에요. 객석에서 받는 기가 굉장해요. 섣불리 뭐 하나 대충할 수가 없어요. 객석 반응이 바로 오니까요. 객석 분위기가 전체 공연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대에 못 미친다 싶으면 박수와 환호 소리가 바로 달라지죠."

지역에 따라 객석 반응도 다르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흥이 많은 남도 지역이 아무래도 반응이 뜨거워요. 중부는 점잖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지역을 불문하고 캠퍼스는 항상 반응이 좋아요. 젊은 관객들은 이미 즐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은 300여 명의 제작진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많은 이들에게 '열린음악회'의 얼굴은 황수경 아나운서다.

1993년 19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황 아나운서는 '뉴스 9'의 앵커로 활동하다 1998년 10월 '열린음악회'와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출산휴가와 해외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열린음악회'의 마이크를 잡아왔다.

황 아나운서에게 '열린음악회'는 '삶 그 자체'다.

"'열린음악회'는 제 인생이자 생활이에요. 무대에 서는 게 정말 감사해요. 조명이 들어오는 순간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가끔 잘할 수 있을까란 걱정도 들지만 기분 좋은 긴장감이라고 생각해요. 무대에서는 관객과 함께 즐기자고 마음먹어요. 내가 즐기지 않으면 객석도 즐길 수 없다고 믿거든요."

지금은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됐다지만 초반에는 '어리석은 진행'도 많이 했단다.

그는 "처음에는 차가운 이미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줌마가 돼서인지 부드럽게 객석과 무대를 아우르는 게 조금은 수월해진 것 같다"며 수줍게 웃었다.

종종 악천후 속에서 공연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다. 황 아나운서의 MC 데뷔 무대도 폭우 속에서 치러졌다.

"그때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나갔는데 스스로 '이건 상서로운 비'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졌어요. 수년 전 경북 청송에서 공연을 했을 때도 폭우가 와서 공연이 자꾸 중단됐어요. 예정됐던 공연 시간보다 두 배는 더 걸렸죠. 그렇지만 객석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끝까지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이 공연을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이제는 웬만한 비에는 제작진 모두가 끄떡도 안 한다"며 "관객들과 약속이니까 무조건 간다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곳에서 관객들과 만나 왔다.

1993년 민간인 통제구역인 철원 노동당사에서 열렸던 공연을 비롯해 1995년 청와대와 이문동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청사, 1997년 국회의사당, 1998년 제4땅굴, 2005년 금강산 공연 등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순이, 소향, 바다 등 출연 가수들의 무대는 진행자인 황수경 아나운서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줬다. 감동적인 무대들을 떠올리는 그의 눈가는 금세 촉촉해졌다.

"가수들이 열창하는 무대를 보면 정화가 많이 돼요. 무대 뒤에서 정말 행복하죠. 일하면서 이런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복이 어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 씨가 모친상 당하고 얼마 안 돼서 출연했는데 그 무대를 볼 때도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동방신기가 나와서 열정적으로 춤추는 모습을 볼 때도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면 저렇게 출까'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열린음악회'는 올가을 1000회를 맞는다. 제작진은 특집으로 1000회를 자축할 예정이다.

황 아나운서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박수할 때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떠나는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연합뉴스

유진룡 문광부 장관 "한류는 선배 대중예술인 덕분"

구봉서, 송해 등 9명과 오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구봉서(87) 등 원로 대중예술인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날 한류는 선배 대중예술인들이 쌓은 토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 장관은 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 원로 대중예술인 9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구봉서, 임희춘(80), 송해(86) 등 원로 코미디언을 비롯해 최명수(88), 이순재(78), 최불암(73) 등 연기자, 금사향(84), 명국환(80) 등 가수, 고은정(77) 성우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참석한 2013년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을 언급하며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의 어버이"라며 존경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오늘날 K팝과 드라마 등 한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현상은 아닐 것"이라며 "과거 척박했던 시절 선배님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토대 위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 대중문화의 역량이고 큰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예술인들은 "요즘 옛 세대를 위한 무대가 거의 없는데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며 "방송사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나 예술인복지 등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순재 씨는 "젊은 세대와의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학교에서부터 언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장관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복지 제도 내용을 전했고, 방송사와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9일(음 3월 30일 乙亥)

子 36년생 걸림돌은 과감하게 치워라. 48년생 복의 싹이 움트고 있다. 60년생 실제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2년생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84년생 성취의 기쁨에 흠뻑 젖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07

丑 37년생 빨리 간파하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하다. 49년생 형식적이라면 소모적일 뿐이다. 61년생 비교해 봤자 도토리 키 재기식이다. 73년생 보려고만 하지 말고 느껴야 한다. 85년생 가까운 이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자. 행운의 숫자 : 35, 62

寅 38년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백번 나을 것이다. 50년생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62년생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 두어야만 할 것이다. 74년생 꼭 혼자만 알고 있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3, 73

卯 39년생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겠다. 51년생 희비가 교차할 수 있으니 선택을 잘 하자. 63년생 큰 배가 바다로 진수하는 장엄함이 보인다. 75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신속한 실행을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8, 18

辰 40년생 조금만 유연하다면 많은 것을 끌어안을 수 있다. 52년생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64년생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하는 통쾌함이 보인다. 76년생 파격적일 때 훨씬 더 값진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39, 47

巳 41년생 마지막 관문만 잘 통과하면 되느니라. 53년생 침체 속에 숨어 있는 기회를 볼 줄 알아야 한다. 65년생 먼저 경험한 이의 충고가 가장 유익하다. 77년생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사고를 면하겠다. 행운의 숫자 : 48, 59

午 42년생 적시에 전환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54년생 능동적으로 나섰을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66년생 주변에 협조자가 생기기는 하지만 기대할 바는 못 된다. 78년생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호기다. 행운의 숫자 : 25, 40

未 43년생 있어도 없는 것처럼 시종일관 삼가라. 55년생 구태를 벗어버린다면 신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67년생 매우 복잡다단하여 애를 먹겠다. 79년생 막연한 걱정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86, 49

申 44년생 당황하지 않는다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느니라. 56년생 말로 논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낫다. 68년생 부단한 노력은 숙련을 위한 기본 과정이다. 80년생 진실을 토로한다면 숨은 오해가 풀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2, 70

酉 45년생 기본적인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는다. 57년생 달콤한 말은 독이 될 수도 있다. 69년생 순조로우나 주변인의 애로 사항이 보인다. 81년생 왕대밭에서 왕대 나고 쑥대밭에서 쑥대 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3, 93

戌 46년생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이가 보인다. 58년생 가던 길을 재촉한다면 곧 목적지에 도달한다. 70년생 향후의 돌발적 변수를 예측하고 있어야겠다. 82년생 부담스럽다고 해서 외면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71, 80

亥 47년생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59년생 대범하고 역동적으로 펼쳐 나가도 될 때이다. 71년생 제반사가 형통함을 도모하는 모습이니라. 83년생 상대방의 입장부터 고려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66,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아이들

파노라마(KBS 1TV·9일 밤 10시)= '내 아이는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욕망이 끓어 넘치는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방치된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었다.

'파노라마'는 가정의 달 기획 2부작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9일과 16일 밤 10시 방송한다. 내레이션은 배우 정진영이 맡았다.

제작진은 전국 각지를 돌며 위기에 처한 50여 가구 아이들을 직접 만났다. 제작진이 만난 아이들의 현실은 너무도 비참했다.

1부 '도시, 아무도 모른다'에서는 노숙하는 도시의 아이들을 다룬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18만 명에 달하는 서울역이지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방치된 채 학대와 폭력에 버젓이 노출된다.

버들뫼마을 최고의 손맛은?

고향을 부탁해(MBC TV·9일 오후 6시20분)= 산 깊고 물 맑은 파주 버들뫼 마을에서 펼쳐지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맛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80년이 넘도록 마을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자매 할머니다. 눈빛만 봐도 척하면 척이라는 두 할머니의 손맛은 과연 찰떡궁합이다.

파주의 명물, 장단콩으로 만든 재래식 손두부는 물론, 마을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버섯재배장에서 공수해 온 향긋한 버섯구이까지.

넉넉한 정에 맛이 익어 가는 곳! 버들뫼마을에서 만나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자연 밥상,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오감의 고장 경남 하동에서 두 남자의 몸에 좋은 여행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해밀턴 총장 이 말하는 교육

영국지성과의 대화(EBS TV·밤 11시15분)= 영국문화원이 '2013 지식강연시리즈'로 마련한 내용 중 일부를 2부작으로 방송한다.

옥스퍼드대 앤드류 해밀턴 총장과 브리스톨대 사회발달심리학과 브루스 후드 교수의 강연이 펼쳐진다.

영국 옥스퍼드대 앤드류 해밀턴 총장이 '당신은 미래의 인재인가'라는 주제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의 중요성과 세계 최고 대학교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에 대해 설명한다.

해밀턴 총장은 예일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예일대 확대 및 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유기·생물화학자로 영·미·유럽의 교육을 모두 거치고 연구 및 경영을 함께하는 인상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